

제주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 논란 확산

4개 단체 제주도에 민원 제기
“물상식·정책방향 모호” 지적
심사영상 공개·재공모 요구
또다른 단체 “결격사유 분명
해당 단체 탈락시켜야” 주장
도 “명백한 불법이라면 불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실시한 2019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 결과를 둘러싼 논란(본보 6월 20일자 8면)이 확산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된 1곳 등 도내 영화 관련 4개 단체가 자체 간담회를 바탕으로 지난 달 25일 재공모 요구를 담은 민원을 제주도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4개 단체는 “진흥원이 영화제와 비영화제 이벤트를 한 사업 안에 경쟁하도록 한 물상식을 드러냈다”며 “근본적 정책 방향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접수제를 표방했으나 합의제로 심사해 밀실 논의로 액수와 순위를 결정했고 제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심사위원 풀도 문제”라고 봤다. 이들 단체는 특히 ‘1개의 법인(단체)당 1개 프로젝트만 신청가능’한 지원 자격을 명시했음에도 ‘제주독립영화제’를 포함한 사업이 선정된 것에 대해 “진흥원이 이 문제를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비전문성을 증명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4개 단체는 제주도에 ▷심사 당

시 영상 공동 분석 ▷심사위원 풀 전문 분야 공개 ▷심사표 항목별 점수 공개 ▷심사위원 풀 재구성 ▷사업 재공모를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또다른 영화 관련 단체 관계자도 “결격사유가 드러난 단체는 탈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회 혼디독립영화제를 단독 사업으로 처리해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을 받았고 누가 보더라도 별개 사업인데 진흥원에서 이걸 한 프로젝트의 섹션이라고 한다면 비전문적이고 무지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추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같은 회사 소속이라면 진흥원에서 필터링해야 하는데 그마저 손을 뚫고 심사위원 전문 분야도 명시되지 않았다”

며 “가뜩이나 공모 내용을 몽땅 그려놨는데 자의적 해석으로 안일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독립영화 정기상영회 사업 계획서를 보면 4개 섹션 안에 혼디독립영화제가 있는데 똑같은 사업으로 도내에서 두 번 받으면 문제지만 국비를 받아오면 행사 외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공고문에 준해 1개 단체당 1개 사업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 영상 공개 요구 등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다만 재공모는 명백히 불법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번주(7월 8일~14일) 무대 & 미술

불밝힌 제주목관아 노랫가락 흐른다

야간개장에 맞춰 음악회
이번 주말부터 5회 운영



9월 7일까지 제주목관아를 찾으면 야간개장에 맞춰 준비된 작은 음악회를 즐길 수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시 도심 불밝힌 제주목관아에 우리 가락이 흐른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원도심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야간개장에 맞춰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가 펼쳐진다. 제주문화원이 주관하는 작은 음악회는 9월 7일까지 제주목관아 연회각 야외 무대에서 모두 다섯 차례 마련된다. 첫회는 취선악 태평소 브라스 밴드, 소리꾼 한금재, 젊은 예인 이지운, 춤꾼 김한결, 제주문화원 실버합창단, 오라룡기타, 한국예총 시니어모텔협회 등이 출연한다.

- ▶ **공연**
▶ 허튼 굿-나눔이야기-전통예술포럼개발원 주최 7월 10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4693-8525.
- ▶ 어린이 참여극 ‘노리아 학교가자’=7월 13일 오후 2시와 5시 국립제주박물관. 720-8035.
- ▶ 낙락 재즈 칸타빌레-정동하 안예은 출연 7월 13일 오후 5시 제주아트센터. 728-1509.
- ▶ 아싸(Outsider) 악기의 인싸(Insider) 명곡=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7월 13일 오후 5시와 7시30분 김정문화회관. 760-3792.
- ▶ 제주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7월 13일 오후 7시 아라뮤즈홀. 754-4697.
- ▶ 여성 7인조 라틴밴드 ‘큐바니즘’ 공연=7월 13일 오후 7시 서귀포관광극장. 732-1963.
- ▶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7월 13일 오후 7시30분. 722-0203.
- ▶ 제주플루트카운 앙상블 정기 연주회=7월 13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4559-9008.
- ▶ 극단 이어도 창작극 ‘원위치’=7월 13-14일 오후 4시와 7시 미애랑 소극장. 722-5254.
- ▶ 자파리 날리리=7월 14일 오후 5시 서귀포문화베타리충전소. 738-5855.
- ▶ 제라한싱어즈 정기연주회=7월 14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010-2696-9919.
- ▶ 가족극 ‘키득키득 도서관’=7월 14일까지 두근두근시어터. 070-8610-7857.
- ▶ 제주에서 단원 김홍도를 만나다-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전으로 7월 9-8월 25일. 760-3351.
- ▶ 강두형 초대전 ‘술방울새와 물고기의 꿈’=7월 10일까지 현인 갤러리. 747-1500.
- ▶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신민정 개인전=7월 10일까지. 757-4477.
- ▶ 예현 개인전 ‘위로를 위한 시간’=7월 11일까지 이증섭작가스튜디오 전시실. 010-6890-0907.
- ▶ 갤러리 바라 개관기념 ‘국제아트프렌드전’=7월 11일까지. 723-5543.
- ▶ 미술등인 집 정기전 ‘아우라’=7월 11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 ▶ 김초은 글씨전=7월 11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 ▶ 포스나인 사진전 ‘찰나와 흐름’=7월 11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 ▶ 현은주 개인전 ‘빛의 제주’=7월 13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0-7476-3361.
- ▶ 제주청년작가전 25년 ‘구본신참(舊本新參)’=제주도문화진흥원 7월 13-18일 문예회관. 710-7633.
- ▶ 장성안 개인전 ‘제주도(圖)’=7월 14일까지 성안미술관. 729-9175.
- ▶ 화산섬극제사진제=7월 14일까지 예술공간 아아. 010-9003-9452.

진선희기자

제주대박물관 주말엔 관람 못하나요?

2012년 정문 인근에 재개관
인력 등 부족 토·일 중단
단체 사전예약시 주말 개방

국립 제주대학교박물관이 2012년 대학 정문 입구 신축건물로 이전해 재개관하며 제주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지만 정작 주말 개방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서귀포에서 왔다는 한 시민이 ‘제주고지도, 제주에서 세계를 보다’ 특별전 관람에 한창이었다. “고지도가 전시된다는 소식에 일부러 대학을 찾았다”는 그는 “좋은 전시가 있으면 오늘처럼 방문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8일 개막한 이번 특별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동여지도’ 중 ‘제주도지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모사본), 제주시 소장 ‘목판본 탐라도’ 등 제주에서 보기 어렵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고지도를 포함 120점 가량이 나왔다. 제주 관련 고지도가 망라된 특별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박물관 측은 방명록 작성자 기준으로 한달 2000명 선이었던 관람객이 6월에는 약 6000명까지 늘었다고 전했다. 제주대 학생, 교직원도 절반이 넘고 나머지는 외부 방문객들이다.

하지만 제주대박물관 운영 시간이 월~금요일 오전 10~오후 5시여



제주대박물관 고지도 특별전을 찾은 한 시민이 전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진선희기자

서 평소 제주도민들의 전시 관람엔 한계가 있다. 다만 1주일 전에 예약하면 20인 내의 단체 주말 관람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물관 관계자는 “주말 운영을 고려한 일이 있지만 유물 관

리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성사되지 못했다”며 “우리 대학은 기획전시실을 포함 6개 전시실을 두고 있는데 주말에 개방하려면 인력,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쏠리

도시재생 공공건축 교육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뉴딜 공공건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7월 9-30일 열리는 이 과정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와 계획수립, 도시재생과 공공건축, 공공건축 재원조달,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관련 정책과 공공디자인 개선방안, 제주형 도시재생 공공건축의 방향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문의 064)727-0612.

고교 찾아가는 인문학교실

제주문학의 집이 7월 11-12일 대기고, 사대부고, 한림고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교실’을 연다.

‘꿈이 먼지야? 현실이 먼지야?’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교실’에는 안혜경 아트스페이스 대표, 하승연 리얼라이즈 인터랙티브 대표, 흥기문 문학평론가, 황규관 시인이 참여해 강연할 예정이다.

다시 보고 싶은 여성영화

제주여민회가 제20회 제주여성영화제(9월 24-29일)를 앞두고 개관 50주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손잡고 특별기획 ‘다시 보고싶은 여성영화’ 세 번째 상영회를 펼친다.

이달 20일 오후 2시 상영회는 다큐멘터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선보인다. 이어 ‘화차’의 변영주 감독을 초청해 스페셜 토크를 진행한다. 문의 756-7261.

제주영화제 씨네토크 데이

사단법인 제주영화제는 이달 16일 오후 7시30분 롯데시네마 제주아라1관에서 제주영화제 관객 멤버십 회원을 위한 특별 이벤트인 ‘씨네토크 데이! 네 번째 행사’를 펼친다.

이날 ‘씨네토크 데이’ 상영작은 제주 미개봉작으로 1972년 뮌헨 올림픽 남자 농구 결승전 실화를 다룬 안톤 메게르디체브 감독의 ‘쓰리 세컨즈’로 정해졌다. 문의 748-0503.

<p>제주직항 전세기 베트남 다낭 5일 출발일 8/1, 8/4, 9/11, 10/3, 10/9 1인당 999,000원</p> <p>제주-다낭-호이안-다낭-후에-다낭-제주</p>	<p>제주직항 전세기 몽고 울란바토르-테를지 6일 출발일 8/8 1인당 1,490,000원</p> <p>제주-울란바토르-테를지국립공원-울란바토르-제주</p>	<p>왕복직항 일본 구마모토 3일 출발일 9/21 1인당 999,000원</p> <p>시즈오카 3일 출발일 10/12 1인당 999,000원</p> <p>제주-미츠야마-미타라-사이조-다카마츠-사카이데-미타라-미츠야마-제주</p>	<p>JEJUair 제주직항 일본 후쿠오카 온천여행 출발일 매주 화, 목 1인당 798,000원 3일 출발일 매주 토 1인당 998,000원 4일</p> <p>제주-후쿠오카-히타-후유인-벳부-키쿠치-후쿠오카-제주</p>
<p>제주직항 중국 백두산 4일 출발일 7/26, 8/2, 8/9, 8/16 1인당 1,099,000원 출발일 9/19 1인당 999,000원</p> <p>제주-심양-통화-이도백-북파-이도백-송강하-서파-심양-제주</p>	<p>중국 황산,항주 3일 출발일 매일 1인당 899,000원</p> <p>황산,항주 4일 출발일 매일 1인당 999,000원</p> <p>제주-항주-황산-홍촌-황산-풍경구-리양가거리-항주-제주</p>	<p>중국 장가계 5일 출발일 9/2 부터 매주 일요일 1인당 999,000원</p> <p>제주-장사-상덕-장가계-천문산-천자산-장사-제주</p>	<p>제주직항 말레이시아 5일 출발일 매주 화, 목 1인당 799,000원 특가</p> <p>제주직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5일 출발일 매주 화, 목 1인당 999,000원 특가</p> <p>제주-쿠알라룸푸르-겐트-말라카-쿠알라룸푸르-제주</p>

· 포 함 : 왕복항공료(공항세, 출국세, 유류세포함), 일급호텔(2인1실), 식사, 입장료, 한국어가이드, 전용버스, 해외여행보험 · 불포함 : 현지가이드 및 운전기사(전일정 30~50 \$ / 1인당), 현지선택관광, 부가세별도